

🔥 0624: 국어 문법 핵심 정리 🔥

자, 애들아! 오늘 배운 내용, 아주 그냥 **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핵.심.포.인.트.**니까 정신 바짝 차려!

1. 🚀 의문 변동의 첨가 현상 (니은 첨가 & 반모음 첨가)

- 첨가 현상이란?
 - 두 음운이 만날 때 그 사이에서 없었던 음운이 새로 생겨나는 현상이야.
 - "없었던 질문이 새로 생겨나서 발현되는 현상" 이게 첨가야!
- 니은 첨가 💰
 - ★ 중요! ★ 언제 일어나?
 -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,
 - 뒷말이 '이, 야, 여, 요, 유' (이중 모음)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일 때!
 - 예시:
 - 콩잎 [콩닙] (콩+잎) ➡ 니은 첨가 일어났지?
 - 숨이불 [숨니불] (숨+이불) ➡ 니은 첨가 일어났지?
 - ★ 중요! ★ 언제 안 일어나? (예외)
 - 깨어: 앞말이 모음으로 끝났지? 그럼 니은 첨가 안 돼!
 - 손은: 뒤에 '은'은 조.사.야! 실질 형태소가 아니지? 그럼 안 돼!
 - 6.25: 이건 필수적인 현상이 아니라서 니은 첨가 안 돼! 🍚 "6.25라고 해요. 니은서가 6미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. 알겠죠?" - 선생님 말씀 기억나지?
- 반모음 첨가 🎧
 - 피어 [피여] (피-+어)
 - 여기서 '어'에 뭐가 첨가됐어? 반모음 'ㅣ'가 첨가된 거지!
 - 그래서 이걸 반모음 첨가라고 불러!
 - ★ 중요! ★ 반모음 첨가는 피어랑 되어요만 인정해! 나머지는 사투리라고 인정 안 해준됐지?

- 🌟 선생님이 "고기 먹으러 가자 이럴 때도 있지만 고기 먹으러 가자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. 사적으로 아이 페이지 대기복으로 가자 이러면 사표니까 다 인정 안 합니다." 이거 농담 아니야, 진짜야!

2. 📝 문장 성분 (주성분, 부속 성분, 독립 성분)

● 문장이란?

- 생각이나 감정을 완결된 내용으로 표현하는 최소의 언어 형식!
- "순이가 궁금한다?" 아니지! "순이가 궁금해한다." 완결된 내용!
- 문장 성분은 우리 몸의 팔다리 같은 거야. 없으면 뭔가 어색하잖아?ㅋ

● 주성분 (없으면 문장 이상해지는 애들!)

- 주어: 동작이나 성질의 주체를 나타내! (누가? 무엇이?)
 - 태현이가(주어) 불렀다(서술어).
 - 아이스크림이(주어) 맛있다(서술어).
- 서술어: 동작이나 성질을 풀이해주는 애! (어찌하다? 무엇이다? 어떠하다?)
 - 불렀다, 배웠다, 중학생이다.
- 목적어: 동작의 대상이 되는 애! (누구를? 무엇을?)
 - 수빈이가 밥을(목적어) 먹는다.
- 보어: 되다 아니다 앞에 와서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애! (★ 중요! 서술어가 되다, 아니다일 때만 보어야!)
 - 선생님은 중학생이(보어) 되었다.
 - 나는 가수가(보어) 아니다.

● 부속 성분 (주성분을 꾸며주는 애들!)

- 관형어: 체언(명사, 대명사, 수사)을 꾸며줘!
 - 새 옷 (새가 옷 꾸며주지?)
 - 예쁜 꽃 (예쁘이 꽃 꾸며주지?)
- 부사어: 용언(동사, 형용사), 관형어, 다른 부사어, 문장 전체를 꾸며줘!
 - 빠르게 입었다. (빠르게가 입었다 꾸며주지?)
 - 매우 예쁘다. (매우가 예쁘다 꾸며주지?)

- 매우 빨리. (매우가 빨리 꾸며주지?)
- 과연 그는 천재다. (과연이 문장 전체 꾸며주지?)
- "몸이 안 좋아요" 에서 안은 좋아요를 꾸며주니까 부사어야! 🚨

- 독립 성분 (나 홀로 존재하는 애!)
 - 다른 문장 성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애!
 - 예시: 지윤아, 아, 어머니 (감탄사나 부름말!)

3. UP! 높임 표현 (주체, 객체, 상대 높임)

- 높임 표현이란?
 - 말할 때 듣는 사람을 신경 쓰고, 주어, 목적어, 서술어를 높여서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표현하는 방법!
- 주체 높임 (주어를 높이는 것!)
 - ★ 중요! ★ 문장에서 주어를 높여!
 - 방법:
 - 주격 조사 께서: 할머니께서 학교에 가셨다.
 - 특수 어휘: 주무시다, 계시다, 편찮으시다 등. (아빠가 잔다는 안 돼! 주무신다 해야지!)
 - 선어말 어미 -(으)시-: 가시었다 (가셨다) ➡ 여기 '시' 보이지? 이게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!
 - 간접 높임 (★ 시험 단골 문제! ★)
 - 주체의 신체, 소유물, 가족 등을 통해서 주체를 높이는 거야.
 - 예시:
 - 할머니께서 발이 아프시다. (할머니 신체를 높인 거야!)
 - 할머니의 발이 편찮으시다? 이걸 안 돼! 🚨 편찮으시다는 직접 주체를 높일 때 쓰는 거라서, 발을 직접적으로 높일 수 없어! "발이 아프시다는 가능하지만 바이 편찮으시다면 안 돼. 왜냐하면 감정 높임기니까 할머니의 신체를 높이는 거니까 이해 가죠." - 선생님 말씀 그대로야!

- 객체 높임 (목적어/부사어를 높이는 것!)
 - ★ 중요! ★ 문장에서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여!
 - 방법:
 - 부사격 조사 께: 선생님께 여쭙다.
 - 특수 어휘: 모시다, 여쭙다, 드리다, 뵙다, 드시다 등.
 - 예시:
 - 나는 할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갔다. (할아버지가 목적어니까 '모시고' 쓴 거야!)
 - 나는 선생님께 모르는 문제를 여쭙어 보았다.
- 상대 높임 (듣는 이를 높이는 것!)
 - ★ 중요! ★ 듣는 사람(상대)을 높여!
 -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뉘어. (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잖아? "선생님 안녕하세요~"!)
 - 격식체: 아주 딱딱하고 공식적인 상황에서 사용.
 - ~십시오, ~브니다, ~오 (하소서체, 하십시오체, 하오체)
 - 비격식체: 부드럽고 덜 공식적인 상황에서 사용.
 - ~아요/어요, ~네 (하게체, 해라체, 해요체, 해체)
 - 예시:
 - "어서 가십시오." (격식체)
 - "안녕하세요." (비격식체 중 해요체)

4. 높임 표현의 잘못된 사용 예시 (시험에 자주 나옴!)

- "아쉽지만 인형사는 벌써 마감되었습니다."
 - ★ 틀린 표현! ★ '행사'는 높임의 대상이 아니야!
 - 고쳐야 할 표현: "아쉽지만 행사는 벌써 마감되었습니다." (<- '시' 빼야지!)
- "할머니께서 다리가 아프다."
 - ★ 틀린 표현! ★ 할머니의 신체인 '다리'를 간접적으로 높여야지!
 - 고쳐야 할 표현: "할머니께서는 다리가 아프시다." (<- '시'를 넣어서 높여야지!)
- "선생님 생각도 오시네."
 - ★ 틀린 표현! ★ '생각'은 오는 게 아니지!

- 고쳐야 할 표현: "선생님 생각도 오시네요." 또는 "선생님 생각도 그렇네요."
(‘오시다’는 사람 주체에 쓰는 거지 생각에 쓰는 게 아니야!)
- 둘이 있을 때 반말하다가 발표할 때 높임말 쓰는 이유?
 - 사적인 상황에서는 **해체 (비격식체)**를 사용해서 친근감을 형성하고,
 - 공적인 상황에서는 높임말을 사용해서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! (이건 높임 표현의 효과와도 연결돼!)

5. ✨ 높임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

- 공손하고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!
- 상대방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하고,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!

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복습하자!

- 첨가: 없던 애가 새로 생겨나는 거! 니은 첨가랑 반모음 첨가!
- 문장 성분: 주성분 (주어, 서술어, 목적어, 보어), 부속 성분 (관형어, 부사어), 독립 성분!
- 높임 표현: 주체 (주어), 객체 (목적어/부사어), 상대 (듣는 이)! 특히 간접 높임은 정말 중요해!

자, 애들아! 이 정도면 오늘 배운 내용 다 정리된 거지? 이거 꼼꼼히 외우고, 문제 풀어보면서 익숙해지면 이번 기말고사 국어는 아주 그냥 문제없어! 화이팅! 🍊